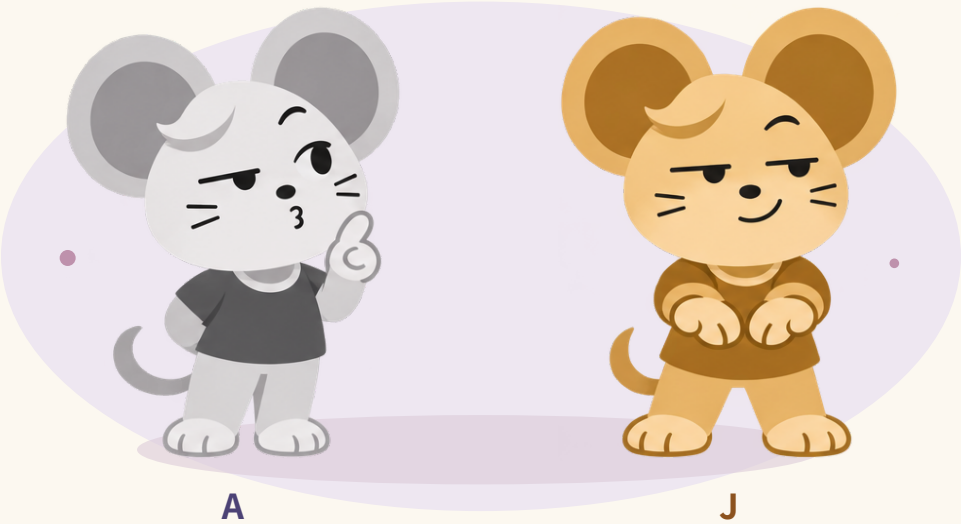
A · 하얀 쥐 J · 황금 쥐

우리 둘 팩폭궁합



A
하얀 쥐

J
황금 쥐

A “나 보고 싶어?”

J “토요일 저녁 비워놨어.”

A “그건 알겠고, 보고 싶냐고.”

같은 토요일을 비워놓고 서로의 대답을 기다린 둘.

둘이 같이 읽는 법

‘너 얘기다’ 싶은 줄이 나오면 옆 사람한테 보여줘. 그러고 바로 다음 줄도 읽어. 거기서 네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

목차

01 **각자 어떤 사람인가** 03–17
일·친구·가족 앞의 모습 · 겉과 속 · 연애

02 **어디서 서로한테 반했나** 18–22
통로석과 저녁 식탁 · 주고받는 마음

03 **잘해주다가 왜 싸우나** 23–31
영화 약속 · 세탁기 수리 · 어긋난 사과

04 **어디서부터 다시 풀었나** 32–37
화해 이후 · 다음 약속에 써볼 말

마지막 한 장 · A와 J에게 37쪽

선택 부록 · 스킨십과 가까워지는 순간 38쪽

캡처 한 장 · 둘이 챙기는 방식 41쪽

본문의 대화와 사건은 두 사람의 명식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장면이야. 선택 부록은 두 사람 모두 원할 때만 펼쳐봐.

일주 캐릭터 · A

A · 경자일주

다시 말해봐.



캐릭터 소개

하얀 쥐

납득 관찰 정확함

평소엔

납득할 때까지 묻는 질문쟁이.

연애할 땐

상대가 “네가 그 말에 서운했던 거구나” 하고 정확히 짚어주면 그제야 누그러지는 연인.

같은 버릇을 보는 두 사람

나한텐 확인

빠진 이유를 한 번 더 확인해.

듣는 사람은

아까 설명한 걸 또 설명해.

개인 분석 · 일, 친구, 가족

같은 A를 두고 사람마다 평이 달라

일할 때 · 그냥 넘어갈 뻔한 걸 잡아줘

회의 끝에 다들 “그럼 다음 주까지”라고 할 때, A는 다음 주에 초안을 보는 건지 아예 끝내는 건지 물어. 덕분에 각자 다르게 알아듣고 다시 모일 일이 줄어. 일 맡는 사람은 고맙고, 빨리 회의 끝내려던 사람은 가방을 도로 내려놔.

친구한테 · 본인도 정리 못 한 얘기를 같이 풀어줘

친구가 “요즘 회사 가기 싫어”라고 하면 A는 언제부터 그런 기분이었는지 들어봐. 일이 많아진 날과 사람 앞에서 무안했던 날이 다르면, 친구도 자기가 뭐에 지쳤는지 알아차려. 오늘은 그냥 같이 욕해달라는 날에도 A는 원인을 찾다가 한 박자 늦고.

가족한테 · 집에서는 말이 한 단계 빨라져

가족이 “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하고 대신 설명하면 A가 바로 “나 그거 신경 써”라고 끼어들어. 밖에선 왜 그렇게 알았는지 한 번 물었을 말이 집에선 곧장 정정으로 나와. 오래 봤으니 자기 취향쯤은 이미 알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일주 캐릭터 · J

J · 무자일주

네 것도 챙겼어.



캐릭터 소개

황금 쥐

실속 챙김 수고 인정

평소엔

말 나오기 전에 필요한 것부터 챙기는 실속파.

연애할 땐

“내가 알아서 했어” 해놓고 상대가 정말 당연하게 여기면 서운한 연인.

같은 버릇을 보는 두 사람

나한텐 배려

힘든 일도 되도록 티 안 내고 해.

듣는 사람은

쉽게 끝난 일인 줄 알아.

개인 분석 · 밖에서 보는 J와 속에서 하는 생각

밖에선 아무렇지 않아 보여 자기는 순서대로 다 기억해

밖에서 보는 J

도와주고도 "별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사람.

J 속에선

기꺼이 한 일도, 얼마나 손이 갔는지는 기억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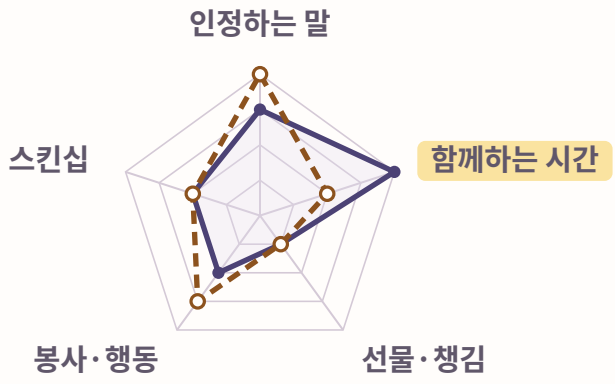
J는 수고를 일일이 말하면 생색 같아서 끝났다는 소식만 알려줘. 상대도 가벼운 일이었다고 받아들여.

같은 부탁이 다시 오면 J는 지난번에 들인 시간부터 떠올려. 처음엔 기쁘게 해준 일인데, 자꾸 반복되면 언젠가부터 이번에도 자기 몫이 될지 먼저 재게 돼.

J야, 너 "별거 아니야" 할 때 '고마워'까지 괜찮다고 한 건 아니지. 근데 네가 어디까지 했는지 아는 사람이 방금 "별거 아니야"라고 말한 너 한 명이야. 다른 사람은 네 말을 믿었고, 너는 그 말을 너무 잘 믿어서 서운해.

사랑의 언어 · A → J

A가 해주는 애정
J가 받고 싶은 애정



A · 주는 애정 J · 바라는 애정

바깥쪽일수록 이 장면에서 더 두드러지는 표현 · 예시 해석

같은 순간, 두 사람이 본 것

A는 J가 원하는 것까지 골라 둘이 같이 즐겨.
J는 같이 있는 시간만큼 자기가 말없이 내준 몫을 알아봐주는 말이 오래 가.

볶음밥도 맛있었지만 J가 반응한 건 “너 고추잡채 보던데”였어. 자기가 물러난 게 보였다는 뜻이거든. A의 애정은 같이 먹는 방식으로 시작했고, J한테 닿은 건 그 전에 건넨 한마디였어.

싸운 뒤 다음 토요일 · 다시 잡은 약속

J는 아직 늦지도 않았는데 대답이 벌써 한 글자야

카톡 대화 싸운 뒤 · 다음 약속

A 13:09
오늘 빠듯하면 이번엔 먼저 말해줄 거지?

13:11 J
알겠어. 말할게.

A 13:12
진짜 늦기 전에도? 뛰면 되겠다 싶어도?

13:14 J
응.

J한테는 오늘 아직 늦지도 않은 약속이야. A한테는 지난번에 입구에 서 있던 일까지 이어진 약속이고. J가 “응” 한 글자로 끝내면 A는 그 말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연락하겠다는 건지 더 묻게 돼. J 입장에선 대답을 했는데 또 묻는 거고, A 입장에선 지난번과 뭐가 달라질지 아직 모르겠는 거야.

생활에서 어긋남 두 번째 사건 · 세탁기 수리

기사는 십 분 있었고 A는 두 시간을 비웠어

세탁기가 탈수하다 멈췄어. J가 젖은 이불을 꺼내고 모델명을 찍은 다음 상담원 연결까지 18분을 기다렸어. A가 목요일에 재택한다고 하자 J는 두 시부터 네 시 사이로 기사 방문을 잡았지.

J가 본 수리 앱

15:40 기사 도착
15:50 수리 완료

A가 본 일정표

14:00–16:00 방문 대기
14:30 은행 예약 취소

J **그래도 금방 고쳤지?**

A **오셔서는 십 분.**

J가 수리 시간을 말한 건 맞아. A는 “오셔서는”에 힘을 줬어. 세탁기 앞에 기사가 서 있던 십 분 이전에도, A한텐 집을 비울 수 없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A와 J에게 · 다음 약속 전에

둘이 다음번엔 이 말부터 해봐

A에게 · 왜 묻는지도 같이 말해

“빠듯한 거 언제 알았어? 그때 알았으면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거든.” 시각만 물으면 J는 얼마나 서둘렀는지부터 설명해. 그 답이 왜 필요한지까지 말해주면 이번 얘기부터 같이 풀 수 있어.

J에게 · 비워야 할 시간을 먼저 물어

“두 시에서 네 시 사이에 기사님 기다려줄 수 있어?” 예약도 접수도 네가 빠르게 챙겨주는 게 고마운 일이야. 상대가 그 시간을 써야 할 때는 먼저 물어보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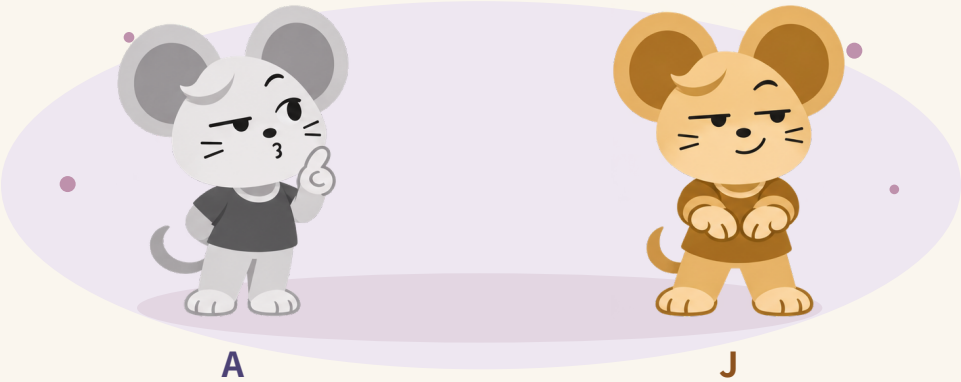
둘에게 · 좋았던 것과 서운했던 걸 다 말해

“팝콘 돌려준 건 좋았어. 아까 얘기는 조금 더 하고 싶어.” 마음이 좀 풀리고 나서도 할 말은 남을 수 있어. 둘 다 말해두면 다정하게 건넨 건 받으면서, 다시 얘기할 것도 놓치지 않아.

공유용 카드

우리 둘 팩폭궁합

하얀 쥐 × 황금 쥐



A
하얀 쥐

J
황금 쥐

A가 챙기는 방식
말과 표정을 다시 보고, 상대가 양보한 몫까지 챙겨.

J가 챙기는 방식
전에 불편하다고 한 일을 기억해뒀다가 먼저 해결해.

둘이 자꾸 어긋나는 순간

A는 뭘 언제 알았는지 묻고, J는 뭘 얼마나 했는지 답해. 같은 대화에서 각자 다른 일을 설명 중이야.

다음번엔 이 말부터

“이 시간 돼? 표는 아직 안 샀어.”
“토요일은 너 보고 싶어서 비워뒀어.”